

디지털 언론환경에서의 피해구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014년 12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은 언론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뉴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 뉴스 정보가 신속하게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 역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과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

권의 보호 사이에서 지혜로운 조화를 도모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심포지엄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의 주제발표와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서울 제6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및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청구를, 사후적인 원인으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글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이 언론기사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이 참여했다(상세내용 13면 참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언론 관련 기구 시찰

언론중재위원회는 2014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언론 현황, 언론법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에는 김길소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강원중재부)을 비롯해 성지호 중재부장(서울제3중재부), 유의선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이 참여했으며, 최영훈 차장, 윤치경 직원이 수행자로 동행했다.

시찰단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Malaya), 말레이시아 TV방송국(Radio Television Malaysia), 말레이시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그리고 싱가포르 신문사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언론 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언론피해구제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찰단이 말레이시아 국영방송사 RTM(Radio Television Malaysia)의 Jack Nadarjah 프로그램 콘텐츠섹션 부회장(우측 여섯 번째) 및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